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도약”

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상용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백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여 일부 백신 부족들은 ‘부스터 샷’을 계획하는 반면 다수의 저소득 국가는 내년까지도 접종 완료가 어려운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

“백신자주권 중요… 국내 1호 백신 내년 상반기 상용화
차세대 mRNA 개발도 속도내… 다방면 지원체계 가동”

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며 “백신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도전 의지와 정부의 육성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과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간 200명 이상의 의과학자를 새롭게 육성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명,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연간

2000명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며 “K-바이오법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글로벌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면서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와도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글로벌 백신 연구소와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달 중에 국내 기업 개발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백신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 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비록 늦더라도 이번 기회에 mRNA백신까지 반드시 개발하여 끝을 본다는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날 청와대·정부서무청장·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용호 의원, 청년 원격
직업교육훈련 지원법 발의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참관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돼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82명이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내 변호사 82명 “이재명, 검증된 지도자”

‘대권 도전’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판단력·실천력 겸비”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82명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신속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검증된 지도자”라며 이 지사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영복 변호사가 대표로 지 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지 지선언문에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이자”며 “선장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

기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지목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회교육, 입시지옥 같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은 인구감소, 저성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전북의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과감한 실천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에는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해 변화를 이끌어낼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국의 공정성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 선진국 반열에 확고하게 올려놓을 책임자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집단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김영복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의 의식이 예전 같지 않고 참여적이다”며 “전북지역 총 308명의 변호사 가운데 82명이 이번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당원과 함께 새롭고 강한 정당 만들 것”

민생당 이진 직능위원장,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겠다’ 민생당 이진 직능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진 후보는 5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변화의 시작’ 선거캠프를 열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이진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통해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정치적 무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생당만의 실용적 중도노선으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당대표 후보는 민생당 전국 직능위원장,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사회분



과위원장, 워크퍼플(work people) 발행인, 평화통일국민운동본부 부총재, 노동환경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생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친 뒤 정견발표회와 3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를 갖게 된다.

당선거를 가리는 당원투표는 오는 8월 24일부터 K보팅과 ARS를 통해 4일간 진행되며,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평화통일 이야기 출간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온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한 책 ‘통통이의 평화통일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남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그대로 이해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해 통일시대를 이끌고 갈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됐다.

정동영 전 장관은 “책을 낸 것도 분단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린 학생들의 의식 속에서 남북은 같은 민족이며, 그에 따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는 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전주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